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 노래와 음악 Notre-Dame de Paris (musical) - Song and Music

차 영 선
아주대학교

Cha, Young-Sun
Ajou University

요약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전체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데 크게 공헌한 것은 원작의 취지와 장르적 완성도를 보여준 노래와 음악이다. 이런 관점에서 스토리와 음악을 결합시킨 송스루 뮤지컬(Sung-through Musical)인 아리아(aria)는,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기존의 서창이나 랩과는 달리, 그 어떤 음악이나 예술장르보다 가장 완벽하게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재현해 냈다.

I. 서론 - 송스루 뮤지컬

송스루 뮤지컬(Sung-through Musical)은 「노트르담 드 파리」(Notre-Dame de Paris)의 장점이자 매력이다. 그러나 한마디의 대사 없이 180여 년 전 위고 작품의 서사를 가능하게 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선은, 1998년 오리지널 초연 직전에 Ost 유포로 대중에게 먼저 노래로 다가가는 선제작업이 있었다는 데 있다. 더욱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친숙해진 점은 물론, 원작이 뮤지컬로 전환되면서 관객이 몰입하도록 무대 위의 등장인물은 6명의 이야기 구조로 축소·변형되면서 보다 관객과 효과적으로 인터렉션하기 위한 전달 기법 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일례로, 거리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에스메랄다는 염소 잘리의 마술로 살아가지만 잘리 동물의 등장은 무대극에서 배제한다. 애기 때 에스메랄다를 잃었던 어머니 귀달 수녀도 마지막으로 에스메랄다가 죽기 전 그녀와 상봉하면서 함께 죽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관객과의 수월한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 생략한다. 또한 악령에 사로잡힌 성직자로 불리며 금기시된 연금술에 빠진 프롤로의 모습이나, 신학교 시절 부모를 여의고 키우던 동생 장 프롤로란 인물도 생략한다. 스토리 축약을 위해 원작의 주요 등장인물은 그랑파르, 에스메랄다, 콰지모도, 프롤로, 페뤼스, 클로팽, 플뢰르 드 리스 6명에 집중되면서 관객과의 소통은 수월해진다. 반면 플뢰르 드 리스는 주인공들에 비해 원전에서는 물론 다른 각색 작품에서도 존재 자체가 퇴색되지만, 유독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만 페뤼스와 함께 비중 있게 다뤄진다. 무엇보다도 다른 버전들과 차별화되는 점은 무대 커튼을 열면서 서곡을 부르는 그랑파르이다. 그의 존재가 극 중간 중간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위고의 역할을 대신하는 해설자로서 가끔씩 극 속에서 나타나 스토리 진행방향을 알려주는 내레이션

(narration)이 중간에 있다는 점이다. 즉, 음유시인인 그랑파르가 과거 중세 역사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곤 하는데, 이때 노래로만 구성된 서사구조를 보완하는 플래시백(Flashback) 회상기법을 사용한다. 더 나아가 각각의 곡들이 그 자체로서 완결된 노래가 아니라 내용의 극적인 진전과 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님으로써 이야기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플롯 형태는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하며 관객의 설득을 유도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스토리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은 원작의 장르적 완성도를 높인 노래와 음악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창은 약간의 음률과 대사를 읊으며 낭독하듯 노래하는 기존의 레치타티보(recitative)나 랩과는 달리, 모든 음악적 표현수단을 동원해 대중과 소통하도록 가수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노래와 음악이 서사에 협력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II. 노래와 음악

각각의 노래에 담긴 가사내용을 플롯과 연계하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곡전체가 연결고리를 이루는 새로운 기법을 창출한다. 특히 위고의 소설을 수차례 탐독한 뒤 플라몽통이 원저자의 의도를 정확히 해석한 축약 작시는 위고의 소설 전체에서 얻어낸 독창적인 영감의 산물이다[1]. 반복적인 노래가사는 극 흐름 전체에 일조하며 위고의 인도주의를 쉽게 가슴에 와 닿도록 풀어낸다. 종종 희극적인 표현과 함께 사색적 깊이가 담긴 가사 내용은 귀에 익은 멜로디를 각 캐릭터의 특징과 심리에 맞게 효과적으로 담아낸다. 54곡 모두가 명곡 아리아로 달콤하면서 색다른 감흥을 주는 멜로디다. 작곡은 '인간의 느낌을 음과 리듬의 형태로 바꾸는 활동'으로 아름다운 운율과 멜로디는 '일정한 규칙과 공식을 갖추고 있

다'는 점에서 수학 공식이나 원리를 음악 속에 최대한 적용해 아름다운 음률을 빚은 리카르도 코치안테(Riccardo Cocciante)의 곡들이다[2]. 작곡가 코치안테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남미에 걸쳐 큰 인기를 누리는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칸타우토레(cantautore)로서 가수 겸 작곡가”이다. 마치 “13세기 중세 음유시인인 트루바두르, 민스트렐, 미네징거처럼 직접 시를 짓고 곡을 붙이며 자신이 직접 노래하고 연주하기도 하지만”[3], 특정 장르의 음악이 아닌 자기만의 독특한 음악성을 추구하는 통기타 가수라는 점에서 싱어송 라이터(Sing A Song Writer)다. 그의 지휘 아래 가수들의 노래연습이 이루어지며, 직접 기획한 완성도 높은 편곡과 반주곡 연주로 관중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적당한 강약조절로 힘 있고 호소력 짙은 노래와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의 하모니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지만 강렬한 가창력을 대중에게 힘껏 쏟아내는 배우의 풍부한 성량, 안정적 음정과 발성은 5년간의 준비기간 동안 고도로 숙련되게 연습한 결과다. 주요배역들은 뮤지컬 전문배우이기보다는 노래배태랑인 유명 가수를 캐스팅함으로써, 「노트르담 드 파리」의 오리지널 배우는 ‘대중가요 가운데서 감상적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발라드 가수 즉, 락커 출신이다. 발라드는 이야기 형식의 성악곡으로 “12세기 프랑스의 떠돌이 시인이 부르던 이야기를 담은 서사시에서 시작한 대중가요다”[4]. 이런 주역 가수들은, 400여명의 지원자가 오디션에 참여하여 1년 반 동안 전문가가 열띤 평가 끝에 발굴한 최고의 아티스트다. 그러므로 ‘록과 정통 성악을 조합한 폭발적 발성’의 정예가수의 캐스팅은 뮤지컬의 완성도를 높여주는데 기여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대중과 소통하게 하는 서사의 또 다른 수단은 음향이다. 체험 콘텐츠인 뮤지컬은 가수들이 라이브를 할 때 마이크를 착용한 채로 진행되며, 간주와 반주 모두가 오케스트라가 없는 MR(녹음된 반주: Music Recorded)공연이다. 그러나 배우들이 밀도 높은 연기를 수행해야 할 장면 연출 시에는 간혹 MR을 AR로 대체하는 경우를 주목할 수 있다. AR(All Recorded)은 노래와 음악이 전부 다 녹음된 것이다. 노래와 반주가 함께 있는 곡이 AR인데 립싱크(Lip-sync(play-back))는 립 싱크로나이제이션의 준말로 입술의 움직임을 목소리에 맞추어서 연기에 몰두해야 할 장면을 연출할 때에 적용된다. 그러나 보통 때에는 생음악의 참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 주로 반주만 들어있는 ‘반주곡’ 즉 ‘MR 연주곡’으로, 무대기둥 속에 설치된 직물로 만든 큰 울림통의 음향시스템 장치인 강력한 MD가 MR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현지에 대동한 뮤지컬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과는 반대로 최상의 사운드를 갖춘 MR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트르담 드 파리」의 웅장한 사운드의 진가는, 관객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함 없는, 높은 기량의 훈련된 가수의 노래실력으로 최고조에 달한

다. 각 배우의 노래 역량으로 빛을 발하는 MR에는 또, 합창단의 섬세한 음결과 전자사운드의 특수 악기 소리가 배합되어 황홀한 매력을 발산한다. 이때 특히 연주 중 반주 음으로 전자 사운드가 가미되는 락(Rock) 분위기의 음향 효과는 매혹적이다. 공연은 시작적인 면은 물론 색다른 가수의 음색(바리톤(콰지모도), 베이스(프롤로), 테너(페뷔스))과 파워풀한 전자 기타 반주 음향으로도 신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팝과 록에 정통음악을 융합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선율은, 전통 클래식 음악에서 벗어나 대중음악적 요소가 잘 녹아든 록(Pop Rock Musicals)에 가까운 ‘세미클래식’이라 할 수 있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배우로 구성된 라이선스 버전으로 재창조되며 2년 동안 33만 관객(10개 도시, 230여회 공연)을 동원할 뿐 아니라, 2012년에는 프랑스 오리지널 팀이 또다시 한국을 방문하면서 영어 버전 「노트르담 드 파리」로 거듭나기도 했다. 러시아, 스페인, 영어, 이탈리아 등, 각 나라의 버전으로 번역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각 나라 배우들이 모국어로 노래 부를 때 종종 노랫말과 리듬이 자연스럽게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의 원어를 각 나라 언어로 옮길 때, 일례로 두 박자에 소화해야 할 1482년 ‘천사백팔십이년(7음절)’을 ‘15세기(4음절)’로 축약해도 무방할 것이다. 뜻이 통하면서 쉽게 부르고 들을 수 있도록 멜로디와 정교하게 일치하는 음절번역에만 약간의 정성을 쏟아도 노래의 완성도는 현격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래 선율과 안정된 조화를 이루는 잘 다듬어진 ‘가사번역’은 대중과의 소통을 배려하는 제 2의 창작으로서 원작의 저자 빅토르 위고의 인본주의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취지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위키백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http://en.wikipedia.org/wiki/Notre-Dame_de_Paris_\(musical\)](http://en.wikipedia.org/wiki/Notre-Dame_de_Paris_(musical)), (2014.06.04.)
- [2] http://www.guidance.co.kr/case_db/job/jg003.htm
- [3] “세미클래식<<중간 음악의 필요성>>” http://sound.or.kr/bbs/view.php?id=salon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desc&no=2&PHPSESSID=e2865bdb721fd27acfa8ec35d433c556
- [4] 김철웅, “음악으로 여는 세생발라드”, RFA, 자유아시아 방송, 2009.05.22.